

발사前 대북특사 조기 파견 가능성

■美, 북 미사일카드 어떻게 대응할까

적극 대응엔 “北 전술 말려든다” 신중 정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이를 막으려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단호하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여겨지는 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목적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발사할 때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카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중일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움직임을 대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한 데 그친 것도 아직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키(key)는 미국이 쥐고 있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협상에 나선다면 북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조만간 뉴욕체널을 통해 북한과의 물밑접촉에 나서거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를 활용해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결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미국은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하는데 대해 대체로 적극 협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5월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자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에 응해 제네바협의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회령시 대성담배공장을 시찰. 생산된 담배를 피워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사진 촬영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일 정상 “북핵·미사일 공동대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이날 양자간 첫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핵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루아가는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국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자국내 물론 해외에서 수요를 진작시켜 나가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아소 총리는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

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아가는데 도움을 주며, 미일 양국간 클린에너지의 공동연구와 개발 실적을 쌓아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취임후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백악관 집무실로 외국 정상을 초청해 회담을 갖기는 아소총리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국정원 “北, 3대 세습 가능할 것”

‘김정은 후계자설’ 아직은 신빙성 없어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

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북한내 권력 주변의 간부 등의 저항이 적어보인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일의 아들’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이뤄지더라도 장악력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외 언론 보도와 관련, “회의 절차 및 등록 시기를 감안할 때 아직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정운’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이산화탄소 감시위성 남극해 추락

은실가스 조사계획 차질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이 24일 발사한 인공위성이 발사직후 추락해 남극해에 떨어졌다고 스페이스 닷컴과 AP통신이 보도했다.

9년동안 약 2억8천만달러를 들여 제작된 케도탄소관측위성은 이날 오전 1시55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에서 토러스 XL 로켓에 실려 발사됐으나 3분 후 분열될 예정이

었던 로켓과 위성이 분리되지 않아 지구상공 640km의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추락했다.

OSO 위성과 토러스 XL 부스터 로켓을 제작한 오비털 사이언스사 측은 부스터 로켓이 우주에 도달할 때까지 위성을 보호하는 장치인 조개껍질 모양의 ‘페이로드 페어링’이 제때 분리되지 않아 무게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가속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OCO는 어떤 육지 상공도 지나지 않고 남극대륙 못 미쳐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터기여객기 추락

암스테르담 공항 착륙중

승객과 승무원 135명이 탑승한 터키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 1대가 25일 오전 10시45분(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고 터키 아나톨리아 통신이 보도했다.

미 CNN방송은 사고기 동체가 세 동강 났으며, DPA 통신은 사고기 스키폴 공항 인근 들판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CNBC는 승객 약 50명이 다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아나톨리아 통신도 일부 승객이 사고기를 떠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장 연료통 식별 안돼”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해 지구궤도에 올리려면 다량의 연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연료 드럼통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위성상에 포착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정보당국은 이것을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징후로 보고 있지만, 교체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

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과거 이란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란은 지난 2일 고체연료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도 고체연료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연료통이 식별되지 않아 정보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5일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로켓 추진용 연료를 담은 드럼통이 식별되지 않고 있

www.kimyouni.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정읍시 바로 뒤 (062)227-6088

합격은 김영에서

합격률 99.9% / 최다 합격생
 사립대학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34

2010학년도 편입대비

합격률 99.9% / 최다 합격생
 사립대학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대학편입 대개강 : 3월 2일

novita

이탈모 예방, 탈모 치료, 생머리 보습, 미용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대전문기업!

신발이신발! 헤어신발! 손발부담수술!
 손발신발! 손발신발! 손발신발!

노비타비대전문기업 **비데프라자** | ☎(082)515-1144

아이엘리시아

최대 30% 할인 혜택

합격률 99.9% / 최다 합격생
 사립대학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 최다 합격생

www.kimyouni.co.kr ☎(062)671-1199